

중국 소득 불균형화 심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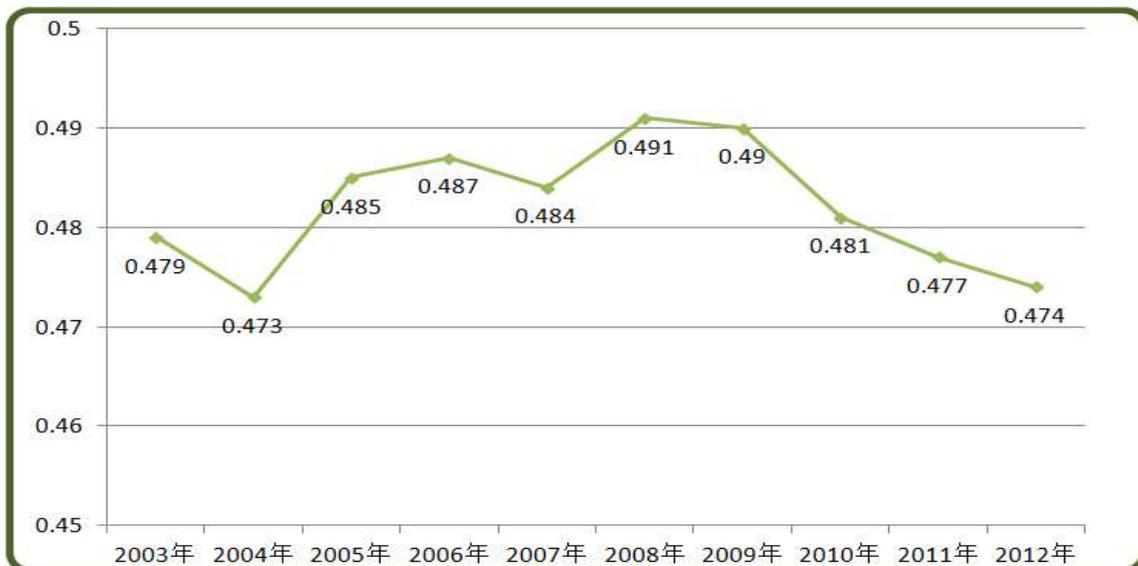
(2013. 2. 4)

상해사무소 제공

□ 중국정부, 최초로 지니계수 발표

-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0.47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. 중국 정부가 농촌지역의 지니계수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, 중국 전체에 대한 지니계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.

최근 10년 중국의 지니계수 추이



□ 중국은 지니계수가 0.474로,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

- 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니계수는 2003년 0.479에서 2004년 0.473으로 떨어졌다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 0.491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향 추세를 보여 2012년 0.474를 기록하였음.

- 지니계수는 수입 분배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,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을 의미함.
- 국제 표준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.4 이상이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며 , 0.6이상은 소득불균형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사회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음.

□ 통계의 신뢰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

-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정부의 지니계수 발표가 민생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- 다만, 이번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니계수가 지금까지 여타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있는 만큼 통계수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.
- 그간 중국 정부가 도시지역 지니계수를 조사하고서도 수치가 너무 낮아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개한 수치 역시 정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.
- 실제로 성도 재경대학 연구팀이 중국 전역 25개 성시와 80개 현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니계수는 2010년 0.61로 집계된 바 있으며, 세계은행 보고서 역시 중국의 지니계수가 0.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
자료: 중국 국가 통계국, 중국 신문망